

결말(1)

다니엘 3장 19-23절 말씀

- 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
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
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
- 20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
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
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
- 21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겹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
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
- 22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
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
-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
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

결말(2)

다니엘 3장 24-27절 말씀

- 24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
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
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
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
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
- 25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
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
상하지도 아니하였고
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
- 26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
불러 이르되
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야
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
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

27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
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
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
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

결말(3)

다니엘 3장 28-29절 말씀

28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
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
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
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
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
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

29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
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
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
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
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

다니엘 3장 30절 말씀

30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
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